

남구청역

최근 수정 시각: 2025-09-24 14:33:02

분류: 남구(효빈)의 철도역 | 1988년 개업한 철도역 | 효빈 도시철도 1호선 | 효빈 도시철도 4호선 ||
효빈 도시철도 8호선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

- [1. 개요](#)
- [2. 역 정보](#)
- [3. 역 주변 정보](#)
- [3.1. 출구 정보](#)
- [4. 일평균 이용객](#)
- [5. 승강장](#)
- [6. 연계 교통](#)
- [7. 기타](#)



역명 표기

1 호선	남구청
4 호선	Nam-gu Office
8 호선	南區廳 / 南区厅 / ナムグチョン

주소

1 호선
효빈광역시 남구 평당동 1708
4 호선
효빈광역시 남구 평당동 1708
8 호선
효빈광역시 남구 평당동 1708

관리역

남구청관리역

1. 개요

효빈 도시철도 1호선 106번 및 4호선 403 번 및 8호선 812번. 효빈광역시 남구 평당동 1708 소재.

2. 역 정보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남구청역 출구 정보

1	판령초
2	효빈남부경찰서
3	상원대초
4	남구민광장
5	남구청
6	남구민광장
7	이편한세상 평당아파트
8	효빈남부경찰서
9	상원대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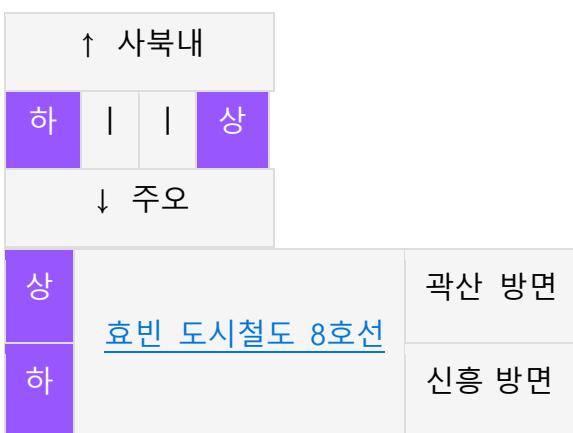
운영 기관	
1 호선	
4 호선	효빈교통공사
8 호선	
개업일	
1 호선	1988년 2월 9일
4 호선	2003년 3월 5일
8 호선	2024년 3월 4일
역사 구조	
지하 3 층 (4 호선)	
지하 2 층 (1 호선)	
지상 2 층(8 호선)	
승강장 구조	
2 면 3 선 상대식 승강장 (1 호선)	
복선 상대식 승강장 (2 호선)	
복선 상대식 승강장 (8 호선)	

4. 일평균 이용객

연도	1	4	8	총합	비고
2020년	25,616 명	22,834 명		48,450 명	
2021년	26,826 명	23,675 명		50,501 명	
2022년	32,178 명	30,051 명		62,229 명	
2023년	35,020 명	30,999 명		66,019 명	
2024년	38,072 명	32,239 명	13,822 명	84,133 명	

5. 승강장





6. 연계 교통

구분	정류소명	노선 번호
순방향	남구청역	5, 191, 793, A02, 891
역방향	남구청역(건너편)	05-1, 911, 793, A02R, 891

7. 기타

- 남구의 심장, 교통의 중추: 남구청역은 효빈 도시철도의 '척추'인 1호선(1988년 개통), 남부 산업과 덕질의 동맥 4호선(2003년 개통), 그리고 남구 내부를 촘촘히 잇는 최신예 **8호선(2024년 개통)**이 만나는 거대 트리플 환승역이다. 역명대로 남구청과 남구보건소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남구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분주한 곳이다.
- 극한의 수직 환승 (지하 3층 ↔ 지상 3층): 신흥역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수직 이동을 경험할 수 있는 역이다.
- 지하 3층 (4호선): 안천구와 해운산업지구를 잇는 중전철이 깊은 지하를 달린다.
- 지하 2층 (1호선): 구도심과 해수욕장을 잇는 1호선이 그 위를 지난다.
- 지상 3층 (8호선): 도로 위 고가 선로를 달리는 8호선 경전철이 까마득한 높이에 위치한다.
- 4호선에서 내려 8호선으로 갈아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4번 이상 갈아타며 끝없이 올라가야 한다. 이 때문에 바쁜 출근 시간대에는 "남구청 등반 코스"라 불리며, 건강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라

는 캠페인 문구조차 무색해지는 구간이다.

- 철도 건축의 박물관: 1980년대 후반(1호선), 2000년대 초반(4호선), 2020년대 중반(8호선)의 건축 양식이 한 공간에 공존한다.
- 1호선 승강장의 옥색 타일과 투박한 기둥은 레트로한 감성을 자아내고, 4호선은 실용적이고 깔끔한 느낌을 주며, 통유리로 마감된 8호선 승강장은 남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뷰를 선사한다. 환승 통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효빈시의 발전사를 체감할 수 있다.
- 다양한 목적의 교차로: 관공서 업무를 보러 온 민원인(주로 1, 8호선 이용)과 산업단지로 출근하는 근로자, 그리고 주말이면 4호선을 타고 남쪽의 **안천구(헬로해피/RAS 성지)**나 **탄성군(아쿠아 성지)**으로 향하는 서브컬처 팬들이 뒤섞여 복적이다. 특히 4호선 승강장에는 주황색 굿즈를 든 팬들이, 8호선 승강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는 등 층별로 주 이용객 층이 갈리는 모습도 흥미롭다.